CHAPTER 4. 정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5) 영어, 절대평가라고 얕봤다간 큰 코 다친다

현재 고교생들은 절대평가로 수능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체 응시자의 상위 4%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던 상대평가와는 달리 이제는 일정 점수(90점)를 넘긴 응시자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서 수능 영어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에 마냥 손놓고 있어선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난도'는 일정…

상대평가에선 '점'차, 절대평가에선 '5점'차?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영어 과목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평가에서는 90점과 100점이 똑같은 1등급을 받고, 80점과 89점이 똑같은 2등급을 받게 되지요. 기계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체 4%에 불과한 1등급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최상위권을 가려내는 변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로 약화되는 것은 영어 과목의 변별력이지 '난도'가 아닙니다. 즉 수능 영어가 전반적으로 '대폭' 쉬워짐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지요. 수능이 출제 기준으로 삼는 고교 학업성취기준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고교 수준에 맞는 어휘력, 독해력, 문법구사력 등을 갖춰야만 풀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난이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절대평가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정시에서 영어영역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을 변경한 것도 영어영역을

가벼이 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시에서 영어영역을 그대로 반영하되 반영비율을 축소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등급별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등급별 환산점수를 산출해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영어영역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예를 들어 연세대의 경우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 △4등급은 75점으로 환산해 등급 간 5점 내외의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기존에는 91점을 받은 학생과 89점을 받은 학생 간 점수 차이는 그대로 2점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91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00점, 89점으로 2등급을 받은 학생은 95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 입니다. 즉, 상대평가일 때는 2점에 불과했던 점수차가 현 체제에서는 5점까지 벌어지게 됐지요. 등급 간 점수 차가 10점 내외인 이화여대 등의 경우 그 여파는 더욱 심합니다.

해당 대학들처럼 등급 간 영어점수 편차가 큰 경우, 국어·수학·탐구영역 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영어영역에 의해 합격 당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시에서 영어영역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

성적 향상 가능성 커진 영어…

'모'아니면 '도'

수능은 상대적인 시험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실력이 뒤쳐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다르지요. 다른 경쟁자들의 실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급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학습량을 조금만 늘려도 극적인 등급 향상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곧, 그 약간의 차이를 넘지 못하면 남들에 비해 크게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분명 이전에 비해 많아질 텐데, 그 가운데 홀로 등급을 올리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작정 영어 대신 국어나 수학 학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등급의 기준이 되는 90점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 학습에도 일정 시간을 꾸준하게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수능 영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 영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는 2개영역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데 높은 등급을 받기 수월한 영어영역에서 1, 2등급을 받고, 나머지 영역 중 한 개 등급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수능 영어 학습은 가급적 빨리 끝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3이 되면 수시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도 미리 점검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논술과 면접 준비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특히 내 실력이 충분해도 다른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1등급 수준에 도달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실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부담 없이 공부하며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영어, 4분의 3이 EBS '비연계'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힌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EBS 교재 연계율은 73.3%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EBS 연계교재만 철저히 공부하면 45문제 중 최소 33문제는 맞힘으로써 7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조금만 공부하면 절대평가에서 2, 3등급 받기는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예비 수험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EBS 연계율이 70% 이상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BS 연계율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 함정은 비교적 많은 학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듣기영역에서 연계문제의 절반 가까이가 출제됐다는 점입니다. 듣기 문제는 EBS 교재가 연계되지 않더라도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연계된 문제 중 반은 '굳이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 이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게다가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EBS 연계문항에 '간접연계'가 포함되었습니다. 간접연계는 EBS 교재와 지문의 내용이나 구성이 완전히 똑같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및 소재가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해 문제를 낸 것을 말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연계된 독해 문항 중 80%가 넘는 문항은 간접연계가 되었습니다. EBS 교재에서 사용된 소재가 수능 문제에서 활용됐지만 글의 내용이 다르고, 다른 지문의 내용이 첨가된 경우도 있어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비연계 문항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간접연계된 문항도 'EBS 연계율'에 포함되어 전체 연계율은 73.3%가 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EBS 교재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연계문제를 맞힐 수 있는 것은 아

닌 셈입니다.

따라서 EBS 연계지문을 공부하면서도 비연계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읽으며 필자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는 어떤지 등 기본에 충실 하면 EBS 교재를 통해서도 비연계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 맞히기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

이제 수능에서 성공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세워봅시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수능 영어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선 어떤 학습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학습법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학생들이 잘못 활용하는 학습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주어진 지 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양의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끊어 읽는 연습을 하며 구문 분석을 하지요. 문제는 학생들이 단어와 구문 분석, 또는 문제풀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를 확인하고 넘어가고, 다소 긴 문장이 나오면 문장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려는 학생들은 많지만 정작 지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능 영어는 단편적인 사실을 묻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지요. 단어와 구문, 문제풀이에만 몰두하는 공부법은 단편적인 어휘력과 구분문석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능 영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독해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보다 내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에만 집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스킬은 말 그대로 '요령'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킬을 익히기 보다는 각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BS 연계교재를 '달달' 암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BS 교재 연계율 73.3%'라는 것에 의존해 EBS 연계교재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

듯 EBS 교재가 연계된 독해 문항 중 80%가 '간접연계'입니다. 지문이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문의 소재나 주제만을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70%보다 훨씬 낮지요.

더욱이 EBS 교재를 외우고 간접연계된 문제까지 모두 맞힌다고 가정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70점입니다.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 70점은 3등급 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EBS 교재를 공부하되 내용을 분석하고 추론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더욱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학습법' 찾아라

가장 좋은 영어 학습법은 수능 영어에 요구되는 모든 영역을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휘 △어법 △구문 △문제풀이 네 가지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단어를 외우고, 어법을 정리하고, 구문 분석을 하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까지 해야 비로소 '한 세트' 공부가 끝나는 것이지요.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어느 한 가지 에만 집중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가지를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자신이 취약한 부분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 보세요. 어휘 때문에 독해 문제를 자꾸 틀리는 학생이라면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과 학습량을 더 늘려보는 식입니다. 하지만 학습 비중을 다소 조절하더라도 나머지를 모두 꾸준히 공부해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학습법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학습법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인 공부법이라고 알려진 것을 무작정 따라하며 계속해서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수험생들은 이미 자신만의 영어 학습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우기' '3분 내에 지문 1개 읽고 주제문 찾기' '매일 듣기 한 세트씩 풀기' 등 나름대로의 학습법이 있겠지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압박감에 더욱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진 공부법을 찾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공부법을 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곧바로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지요. 하지만 공부법을 자주 바꾸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오히려 성적이 더디게 향상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학습법을 유지하되 궁금한 점이나 잘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앞서 언급한 학습법과 조력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습법을 조금씩 다듬으면 바람직하면서도 나에게 꼭 맞는 학습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